

거룩한 문 성문교회 성도를 위한

주일오후 가정예배

주일오후 가정예배 순서지

2020.05.17. 주일

<p>목도</p>	<p>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시편 143:10)</p>
<p>신앙고백</p>	<p>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p>
<p>찬송</p>	<p>“십자가 군병들아(찬송가 352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해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2.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해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 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3.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해 일어나 네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4.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해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 하리라
<p>대표기도</p>	<p>인도자(가족 중에서)</p>
<p>성경봉독</p>	<p>디모데후서 4:9~18</p> <p>9)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0)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2)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13)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겹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족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14)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15)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16)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17)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p>
<p>설교</p>	<p>“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p>
<p>가족합심기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리 가족이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2. 코로나-19가 하루 속히 종식되어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경제와 의료체계, 사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소서. 3. 세계 방방곳곳에서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코로나-19와 사회의 시선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p>주기도문</p>	<p>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p>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디모데후서 4장 9~18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을 보면 오직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드렸던 노년의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에게 죽음이 임박한 것을 느끼면서 자신의 신변을 정리하는 듯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영적인 자녀와 같은 디모데를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은 사도 바울의 애끓는 마음이 곳곳에서 보여집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현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도 그렇지만 21절에서도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1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헬라어 원어에는 있지만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며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애타게 찾습니까? 사형을 앞두고 있는 노년의 사도를 누가만 남고 모두 배신하듯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9절처럼 디모데가 서둘러 와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쓸쓸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을 보면 올 때 겹옷을 가지고 와달라고 요청하는데 21절에서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안락한 상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추위를 고스란히 느낄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역시 마음의 고통입니다. 14절 보시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에게 큰 위해를 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자세한 것은 기록되어 있지만 정황을 보면 모함과 함께 사도 바울에게 안 좋은 판결이 내려지도록 거짓 증언을 한 사람으로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야 어찌되었든 이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존재였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큰 고독을 만나게 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16절에서 “처음 변명할 때”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재판 받기 전에 검찰에 소환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심문을 당했던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황제 숭배가 강조되던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사도 바울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순간 어떤 형태로든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으로는 이해가 될지 몰라도 지금 사도 바울은 모두에게 버림을 받았고, 그 일이 이 노년의 사도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드러지는 찬양

마음과 몸이, 그리고 영혼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외로울 이 사도 바울의 현재는 방금 정리한 것과 같이 너무 버거운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고백이 나타납니다. 18절 끝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헬라어 원어는 좀 더 역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찬양을 주님께!! 영원토록 주님께!!”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암울하기 짝이 없는 현실이 분명했지만 사도 바울의 삶은 오히려 더 힘찬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7절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7절 초반부를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 고독한 자리에서 오히려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과 사도 바울이 서로 관계 없는 사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심은”이라고 말하는 바와 같이 주님을 통해 사도 바울은 환경을 뛰어넘는 영적 능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은 오늘도 살아 계시며, 바로 나의 선한 목자로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환경을 뛰어넘는 찬양]은 몇몇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 사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필수 요건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그 사람의 정신력, 환경과 상관 없습니다. 17절 말씀처럼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으로 살아갑시다.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현실을 만나도 변함없이 내 곁에 계셔서 내게 힘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넘치는 찬양과 능력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예배 기도문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때때로 막막하고, 두렵고, 힘들지만
사도 바울 곁에 계시며 넘치는 힘을 주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정의 선한 목자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나를 감싸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가정될 수 있게 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각자의 삶을 통해 넘치는 찬양과 능력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